

독서의 비밀스러운 즐거움

우리는 무엇인가를 읽어도 자신이 읽은 것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책을 읽는 즐거움을 비밀스럽게 간직하려 든다. 책을 읽은 느낌을 말로 표현하기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고 그 묘한 느낌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표현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겠다. 그런 순간의 침묵은 책과 우리들 내부의 친밀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책은 다 읽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책 속에 있다. 누군가가 그 책의 내용을 끄집어 내려고 해도 우리는 좀체로 입을 열지 않는다. 그리고 그 책이 우리를 거대한 외부 세계로부터 보호해준다. 책은 우연으로 가득 찬 세상을 위에서 내려다 볼 수 있게 해준다.

어떤 때는 갑자기 경이로움에 사로잡혀 말을 잃기도 한다. 내 마음을 이렇게 뒤집어 놓은 책이 어찌서 여지껏 세상을 뒤집어 놓지 못했을까. 우리시대의 최악의 현실이 함석판처럼 뚜렷하게 드러나는 카프카의 창백한 세계에 불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세상이 온통 공포로 뒤덮여 있을 때 발터 벤야민의 말에 귀를 기울일 사람이 있었을까.

독서의 즐거움, 책 읽는 즐거움이란 대체 무엇일까. 자신을 새삼스럽게 들여다보게 만드는 물음이다. 우선 우리는 정설에 어긋난 다음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 원칙에 따르지 않는, 오히려 원칙이 없는 독서가 우리들의 인격형성에 도움을 주었다. 세상과 인연을 끊은 사람처럼, 현실을 거부하고 현실에 맞서는 입장에서 책을 읽었고 지금

책은 우연으로 가득찬 세상을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게 해준다. 책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저항한다. 좋은 습관으로 자리잡은 독서는 독서행위 자체를 포함한 모든 것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 우리는 무엇보다 죽음에 맞서 책을 읽는다.

도 그렇게 읽고 있다. 이런 모습이 우리를 도피자처럼 보이게 한다면, 현실이 독서의 매력에 흠뻑 취해 있는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면 우리는 자기세계를 구축하는 일에 열중하고 있는 도망자,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탈우수들이다.

책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에 저항하는가. 우연히 만들어진 모든 것들에 저항하는 것이다. 사회, 직업, 심리, 감정, 이데올로기에서 자기중심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에 대해 저항하는 것이다.

좋은 습관으로 자리잡은 독서는 독서행위 자체를 포함한 모든 것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

우리는 무엇보다 죽음에 맞서 책을 읽는다. 카프카는 타고난 장사꾼이었던 아버지의 기대를 거역하면서 책을 읽었고, 오커너

는 “《백치》가 뭐냐. 그런 제목이 붙은 책을 읽는 걸 보니 네가 백치인가 보구나”라는 어머니의 빈정거림을 참아가며 도스토예프 스키를 읽었다. 티보데는 베르텡 전선의 참호 속에서 몽테뉴를 읽었고, 앙리 몽도르는 프랑스가 독일에 점령당했던 시절 암시장에서 산 말라르메의 시를 탐독했다. 그리고 베이루트 감옥에 갇혔던 신문기자 카우프만은 《전쟁과 평화》를 읽고 또 읽었다. 그곳에서 그는 마취도 하지 않고 수술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읽었던 책의 구절들을 읊조리면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이겨냈다. 그리고 몽테스키외의 다음과 같은 고백은 교육과 독서에 대한 일대 전환을 가져다 준다. “독학은 세상의 모든 불쾌함을 떨쳐버리는 특효약이었다. 한 시간 동안 책을 읽는 것 만으로도 나는 모든 근심 걱정을 깨끗이 잊을 수 있었다.”

몽테스키외의 말은 더욱 일상적인 의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책에 파묻혀 있는 순간, 전철이 흔들리는데도 개의치 않고 펼쳐진 책장속의 그 소리없는 찬란함에 사로잡혀 있는 순간을 생각해 보면 말이다. 또 비서가 책상 서랍 속에 살짝 감춰놓고 보는 소설, 학생들에게 칠판에 나와 문제를 풀게 해놓고 잠깐 잠깐 책을 읽는 교사, 백지로 답안지를 낼 각오를 하고 태연하게 교실 한 구석에서 책을 읽는 학생에게서 우리는 몽테스키외가 한 말을 실감한다. ◆

—《소설처럼》(다니엘 페낙, 도서출판 산호) 중에서

출판저널

통권 제184호/1996년 1월20일 발행

발행인—정진숙
편집인—전병석
인쇄인—이일수
편집위원—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중한
편집주간—이승우
편집장—김지원
기자—박남정 허연
 한동림 이정민
디자인—윤정자
사진—김지욱

업무부장—윤동호
업무·광고—이희천 김유희
 김동필 천창환

(재)한국출판금고
상임이사—최학수
총무부장—이정수
전화 732-1434~5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재)한국출판금고
인쇄처—평화당인쇄주식회사

출판저널-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리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차 구독료 3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매이나 사무실로 우송해 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불입하거나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 독서계의 흐름과 출판계의 이모저모로 이채롭게 꾸며, 한눈으로 볼 수 있게 엮은 합철본을 새로 제작, 한층 자료가치를 높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 합본1호(날권1~10호) 5,000원(판매)
- 합본2호(날권11~20호) 5,000원(판매)
- 합본3호(날권21~30호) 5,000원(판매)
- 합본4호(날권31~40호) 5,000원(판매)
- 합본5호(날권41~50호) 5,000원(판매)
- 합본6호(날권51~60호) 9,000원(판매)
- 합본7호(날권61~70호) 10,000원(판매)
- 합본8호(날권71~80호) 10,000원(판매)
- 합본9호(날권81~90호) 10,000원(판매)
- 합본10호(날권91~100호) 10,000원(판매)

- * 구독의 불편·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서신등을 통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우편료는 합본제작비로 인해 수취인 부담관계로 직접방문, 구입하시면 유리합니다.

“최고가 아니면 포기하라”

선수기질이 있는
편집자와 디자이너를
모십니다

- 대우: 국내 최고의 대우
요건: 국내 최고의 실력
(potential, O.K.)
채용: 1)이력서
2)자기소개서
3)작품목록을 아래
사서함 「인사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20th Century Plus
21세기플러스
a publishing Co.
스웨덴 스웨덴 호텔 앞
☎(02)395-1945 ☎(02)396-3964
서울 서대문구 홍제1동 339-2
서울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1132호
☎110-611

색다른 눈
감각
.....
그리고
걸작

POINT & LINE
포인트·라인
TOTAL ILLUSTRATION
대표: 907-0091
907-0092
FAX: 907-0192